

# FMB850 대체투자 사모펀드

---

Finance MBA

정 지 웅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 사모펀드 인수 사례 I

---

# KKR/Affinity 의 OB맥주 인수

---

- 2009년 7월 벨기에 AB인베브가 KKR/Affinity에 매각: \$18억

(경쟁업체: 롯데그룹, MB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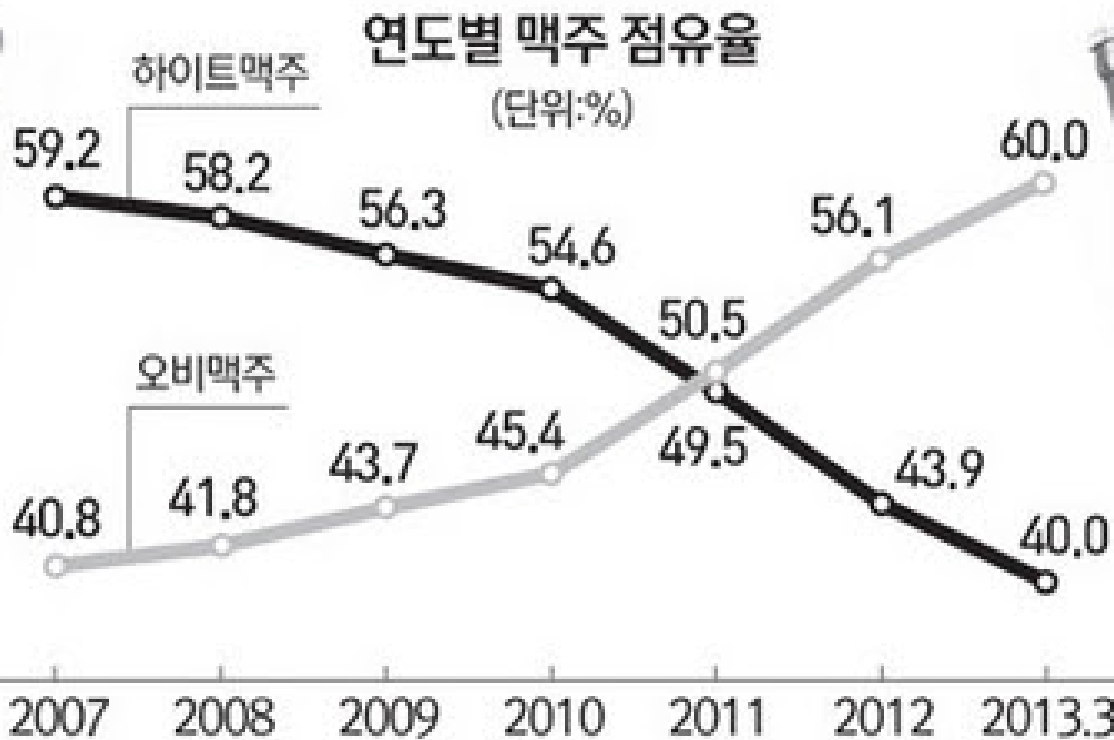
- 5년 뒤 EV/EBITDA=11에 다시 사갈 수 있는 우선매수권/콜옵션 조항
- 3자 매각시 \$18억 초과분 85(KKR):15(AB) 초과수익사후정산
- \$3억은 PIK증권 발행 (현물지급증권)
- \$15억 중 \$7.5억 LBO 대출 (LIBOR+600bps), 나머지 Equity 투자

❖ 2001년 두산으로부터 인수, 금융위기 기간 중 다수의 미국 맥주회사 인수, 부채 상환을 위해 매각

(출처: 윤승환/차일규 "사모투자펀드와 M&A")

# KKR/Affinity 의 OB맥주 인수





자료: 한국주류산업협회



# KKR/Affinity 의 OB맥주 인수

- 2011년, OB맥주를 차입주체로 4,500억원 대출(LIBOR+525bps), 유상감자 4,500억원 실시, 9,000억원으로 차입금 \$7.5억 상환
- 투자회수: 2014년 1월, KRR이 AB인베브에 \$59억 재매각
  - 원금대비 3.22배, IRR 약 30%(투자기간 4.5년)

## [단독]오비맥주 매각 주역 한국계 3인방 '1조' 돈벼락

머니투데이 | 박준식 기자

VIEW : 40974 | 2014.02.12 06:44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4021117054681657&type=1>

기사주소 복사

| 41억弗 매각차익에 조셉배·박영택·이철주 PEF맨 5000억 성과 수수료 잭팟

❖ 동영상: 사모펀드의 기업인수 사례 ([KKR의 OB맥주 인수 대박 이야기](#))

# 사모펀드 인수 사례 II

---

## 영풍그룹 + 고려아연

---

- 1949년 장병희+최기호 창업주, 영풍기업사 창업, 무역업으로 출발
- 1970 석포제련소+전자계열 (영풍), 1974 온산제련소+비전자 (고려아연)
- 경영권과 대주주지위를 상호 교차 보유
- 이후 최씨가 일부 지분 정리, 장씨가 (주)영풍 지배
- 고려아연: 장씨 일가 28%, 최씨 일가 15%



# MBK파트너스, 고려아연·영풍정밀 동시 공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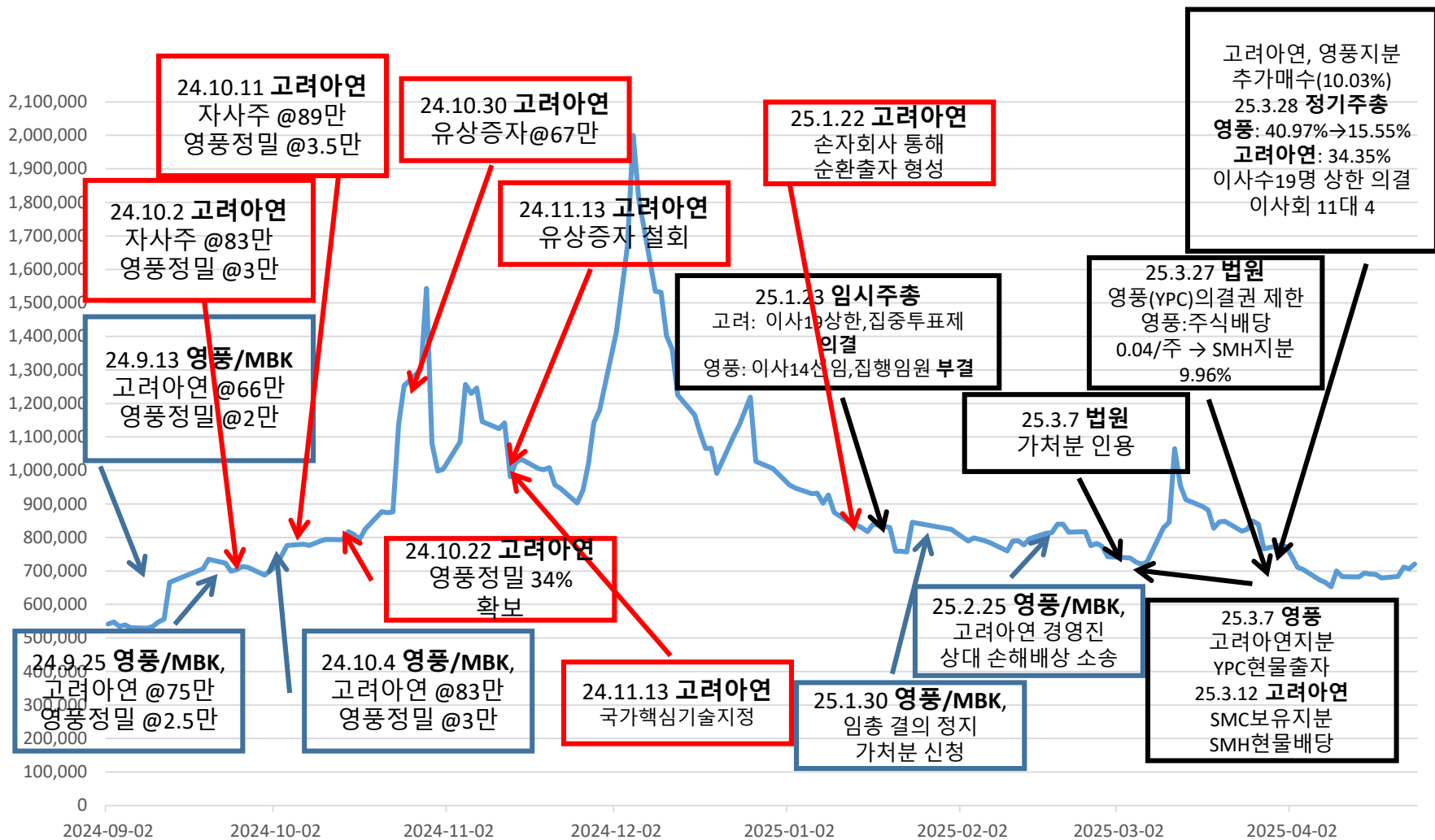
✎ 김태호 기자 | ⓒ 승인 2024.09.13 09:24

고려아연 매수가 주당 66만원 책정...시가 대비 19% 웃돈

주요 계열사 영풍정밀 공개매수도 병행...주당 2만원

**MBK**  
PARTNERS

국내 대형 사모펀드운용사(PE) 'MBK파트너스'가 영풍과 함께 고려아연의 상장 유통지분 공개매수를 추진한다.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주요 계열사인 '영풍정밀'의 지분도 함께 공개매수 한다.



## 영풍 vs. 고려아연

---

- 영풍은 고려아연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아가며 본사업 적자 해결
- 2022년 12월 고려아연 최윤범(3세)은 배당금 대신 공격적인 재투자를 시도, 사업방향성을 두고 상호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
- 2023년 2월 2일, 향후 3년간 배당성향을 30%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22년 배당성향은 50.89%
- 2024년 2월: 고려아연은 주당 5천원 배당을 진행 발표 / 영풍 배당 확대 요구. 고려아연 거부.
- 2024년 4월 고려아연, 영풍과 사업협력 분야 결별 시작
- 2024년 7월: 영풍, 영풍빌딩을 떠나 종로로 본사 이전

# 심상치 않은 한화그룹 투자...영풍-고려아연 '한 지붕 두 가족' 깨지나

입력 2022-08-11 13:09 | 수정 2022-08-17 10:14



1949년 고(故) 장병희·최기호 창업주의 설립 이후 3대째 '한 지붕 두 가족' 지배구조를 유지해온 영풍그룹에 이상 신호가 감지됐다. 그룹 알짜 계열사인 고려아연이 최근 한화그룹과 파트너십을 맺고 주요주주로 초청하는 의사결정에 장형진 (주)영풍 회장이 돌연 불참하면서다. 시장에선 이번 한화그룹의 출자를 계기로 장씨 일가와 최씨 일가의 계열분리 가능성이 또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 MBK는 왜 그랬을까?

---